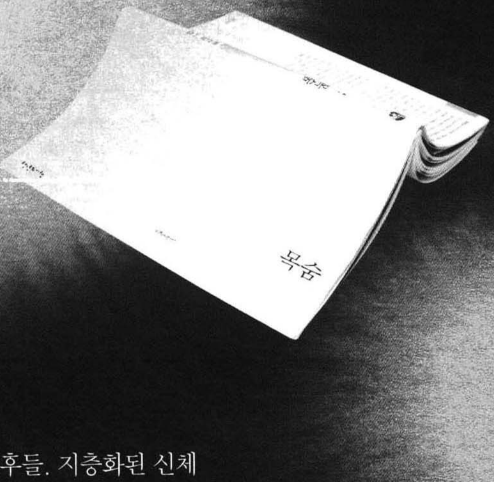
# 놀라운 질병의 상상력

《목숨》 박진성 지음 | 천년의시작 | 124쪽 | 값 6,000원




장석주

질병은 징후들이다. 무엇에 대한·탈영토화의 징후들. 지층화된 신체 내부에서 탈영토화하기. 질병은 저의 숙주인 몸 안에서 탈주선을 만든다. 그 탈주선은 주체의 탈주선 안에서 그 탈주선과 무관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두 개의 탈주선은 이항대립으로 나아가지 않고 상호작용을 한다. 몸/질병은 대립의 요소들이 아니다. 질병은 몸에 작용하는 미시정치학의 징후들이다. 몸은 질병을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들, 그려지지 않은 궤적들을 산다. 질병은 그것들의 선취이다. 부재하는 것, 비어 있는 것. 감기나 몸살은 휴식의 고갈, 세계의 불확정성과 대면하는 잉여적인 면역력의 탕진에 대한 몸의 징후다.

박진성의 시집을 처음 펼쳐드는 독자는 그 도저한 질병의 상상력에 기가 질린다. 박진성의 거의 모든 시편들은 질병의 과잉에서 그 존재태를 구한다. 질병들은 은유의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왜 질병들을 은유로 포획하고 은유의 감옥에 가두는 것일까? 은유 속에 그것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불안과 공

포를 숨기려는 것이 아닐까?

보라, 박진성의 상상세계에서는 섬들이 알약처럼 떠 있고(〈달아를 지나다〉), 첫눈은 빻아놓은 신경안정제처럼 쌓이며(〈나쁜 피〉), 의사는 작아져서 흰 알약이 되고, 거리는 온통 병실이어서(〈대숲으로 가다〉), 아프지 않은 것들은 모두 세계 바깥으로 추방된다(〈나쁜 피〉). 시의 화자는 발작과 분열의 나날들을 산다. 그리하여 "나는 숨 헐떡이는 봄나무였어, 봄 전체가 병원이었어"(〈불꽃이었어, 병원이었어〉)라는 시구도 과장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때로 시인의 상상력은 나무를 끌어와 영혼을 의탁한다. 이 나무는 "나는 나쁜 피가 터져 나오는 혈관, 자라지 말아야 할 나무"(〈나쁜 피〉)이며, "온몸이 목이어서 느티나무도 온몸이 목이어서 오오 목숨"(〈목숨〉)인 나무다. 목은 식도와 몸체를 연결하고 숨결과 음식물의 통로인 목이며, 동시에 나무를 지시하는 문자인 목木이기도 하다.

나무의 뿌리를 통해 올라온 수액은 "보이지 않는 물관을 팽팽하게 부풀려"(〈발작 이후, 테오에게〉)주는데, 그 상상은 자연스럽게 직립의 일생을 "순전히 내 여자를 향한 발기이고 싶다"거나, 사람들에게 "수액을 다 내어주어도 좋겠"(〈가을산〉)다는 상상으로 이어진다. 난만하게 피어난 물의 상상력은 수액을 흥건히 받아들인 나무에서 비롯된다. "열매를 밀어내는 식물 뿌리보다 더 깊은 강이 어디 있는가"(〈수궁에서 놀다〉)에서 볼 수 있듯, 나무는 제 몸 속에 강물과 같은 물의 세상을 갖고 있는데, 시의 화자는 그 강물에서 노는 물고기다. 다른 시에서 시적 화자는 물 속에서 부유하는 "난생卵生하는 부족의 알"이다. 물결 출렁이는 세계에서 "출렁거림 없는 물 밖 세상을 꿈꾸는" 것인데, 그 꿈은 좌절되고 밖으로 토해지지 않는 "더 큰 울음이 나의 몸 안에 흐르고 있다"(〈물고기는 울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이 나무에 무수한 주사바늘이 꽂히는 것은 나무가 아프기 때문이다. 아픈 나무는 저 혼자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약물의 도움을 받는다. "주사바늘 끝에서 반짝이는 불빛, 불빛, 약물 알갱이들아 내 혈관에서 예쁘게 죽어줘 꽃 피어줘"(〈봄밤〉) 질병의 과잉으로 지쳐 있는 몸은 나무나 연약해져 곧 부스러질 것만 같다. 죽음에 가까워지면 질병이 일으키는 환상들은 더욱 밝고 화려해진다.

질병은 신체 기관들의 전횡적인 권력에 침묵하고 있던 질료적 흐름이 특화하며 탈주선을 만드는 것이다. 신체 내부의 질료적 흐름에 포섭된, 즉 신체 기관들의 기능 체계에 장악되어 있는 질료적 흐름은 문제가 안 된다. 인간, 동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분자, 미생물들은 독립적으로 분화된 계통 속에서 질료적 흐름을 갖는다. 그래서 "나무가 누워서 자면 이 잎새와 꽃들은 어쩌라구…"(〈나무야 누워서 자라〉)와 같은 변이가 생겨난다. 신체와, 신체 내부에서 외부화하는 두 개의 질료적 흐름들은 우열 관계, 즉 위계의 계통적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다. 두 개의 질료적 흐름은 균형, 관여, 배제, 공생의 관계 속에서 상호 동등하다. 그러나, 질료적 흐름이 속도 계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탈코드화될 때 질병이 나타난다. 이때 질병은 감염, 침입, 팽창, 해체이며, 질료적 흐름의 계통과 형질의 변환이다. 질병은 질료적 흐름의 밀도성으로 그것을 퍼뜨리거나 증식하거나 변형하거나 고갈에 이르게 한다. 신체 내부의 질서에로 환원되지 않는 속도 계수를 올린 질료적 흐름은 속도와 강밀도의 차이에 의해 신체 내부의 질료적 흐름에 포섭되지 않고 미끄러져 나간다. 그것은 미끄러져 나가며 특화되고 새로운 내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테면 암은 교화되지 않은 야만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기표적 기호다. 암의 공포는 여기저기 무차별적으로 흩뿌려지는 것의 공포이며, 통제할 수 없는 이상증식으로 너무나 크게 확장되는 것의 공포다. 암은 신체의 권력에 포섭되지 않는 질료적 흐름이며 달아나는 늑대다. 그것은 야생이고 야만이다. 야만이란 문명의 훈육적 질서에 의해 길들지 않는 속성이다. 질병의 의미 맥락에서 야만이 길들여지면 야만은 비위생 상태에서 위생상태로 변환된다. 늑대는 넘치고 끓어오르며 거품을 일으키고 번지며 문턱과 가장자리를 넘어서 개가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늑대가 된다. 늑대의 야만성은 개라는 질료적 흐름 속으로 잠복한다. 개는 늑대의 탈영토화이며 늑대라는 계통에서 발생한 질료적 흐름의 변이체다.

압도적인 질병의 상상력은 삶과 질병이 자리를 바꾸는 도치현상을 불러온다. 박진성의 상상에 기대면 질병이 삶의 장벽이듯 삶도 질병의 장벽이다. 삶과 질병이 함께 오래 되면 그 장벽조차 희미해진다. 경계가 지워지면 삶과 질병은 서로를 넘나든다. 박진성의 상상력은 병소에 대한 임상적 탐지와 치료의 언술들, 즉 의사, 간호사, 주치의, 응급실, 병동, 병원, 의료보험, 링거액, 주사바늘, 약물, 거즈, 피, 소변, 검사, 혈관, 강박, 발작, 우울, 신음, 고통, 신열…에서 증식한다. 질병의 상상력은 불연속적인 경련을 일으키며 피어난다. 병은 병을 복제하고 기호화한다. 질병의 과잉은 죽음의 과잉이 아니라 환상의 과잉을 불러온다. 환상은 병의 질료적 흐름의 전환이다. 그렇다고 애상과 비애로 시적 관능을 남발하지 않는다. 그 반향들과 풍경들은 절박하다. 박진성의 시들은 호흡법과 리듬, 언어의 선택, 진정성, 그리고 심미적 깊이에서 뛰어나다. 박진성은 좋은 시인이다. 부디 몸도 시도 더욱 울울창창해져 큰그릇이 되길 빈다. 책판

이 글을 쓴 장석주는
1975년 《월간문학》 신인상과 1979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신문의 신춘문예를 통과하며 문단에 나왔다. 시인,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며 40 여권의 저서를 펴냈다. 요즘 새 책《느림과 비움》, 《책은 밥이다》, 《풍경의 탄생》 등을 연이어 내놓았으며, 동덕여대와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